



16살 청년, 전국수리음악콩쿠르의 날갯짓

전국 유수의 콩쿠르로 자리잡아

전국수리음악콩쿠르는 1995년 시작되어 2010년 제16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국규모의 음악콩쿠르이다. 군포시가 주최하고 주관은 제1회부터 제10회까지 한국음악협회 군포시지부(이하 '군포음협')가, 제11회부터 15회까지는 군포예총(전국수리음악콩쿠르운영위원회)이 해오다가 16회(2010년)부터는 다시 군포음협으로 이관되어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콩쿠르의 시기가 다가오면, 담당 사무국은 일종의 전투태세에 돌입한다. 지금이야 일종의 매뉴얼인 편람이라도 만들어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년도에 파일과 머릿속에 담겨진 경험이란 정보에 의거, 2~3개월 동

안 차근차근 준비단계를 밟곤 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면서 전국수리음악콩쿠르에 관한 입소문은 퍼져나가고 있었다. 참가자들을 통해,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진들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빠르게 상위권 콩쿠르로 수직상승을 했다.

수리콩쿠르의 성공 요인

모든 경연대회가 그렇겠지만 특히 음악콩쿠르의 경우, 참가자들과 학부모들은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편이다. 수리콩쿠르가 수많은 콩쿠르콜 틈에서 유수의 콩쿠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참가자 위주의 편익에 입각한 투명한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 많은 경우 큰 규모의 콩쿠르들이 주최측의 편익에 의해 움직이고, 참가자들은 도리없이 불편을 감수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콩쿠르운영방식을 수리콩쿠르는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은 추첨시간을 세분화해서 참가번호별로 시간대를 정해 미리 연락해주는 방식으로 대기시간을 단축시켰다.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참가자의 사소한 의견에도 일일이 답변을 하고 가능한 한 불만사항을 처리해주려 노력했다. 또한 대회 진행에 있어서도 작은 필요에도 가능한 한 배려를 하는 등 철저히 참가자들의 편익을 추구하는 진행방식을 택했다.

혁신적인 인터넷 실시간 발표 시스템 도입

또한 여타 콩쿠르보다 빠르게 인터넷 접수 체제를 도입했으며, 무엇보다 심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참가자들의 심정을 고려해서 심사점수가 집계되는 대로 즉석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실시했다. 이런 운영방법은 심사결과의 투명성 역시도 담보하는 것이어서 참가자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게 되었다.

심사위원단도 국내의 저명한 음악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공정한 심사에 임했으며, 심사결과를 따로 논의하지 않고 집계된 점수 그대로 발표하기 때문에 심사에서도 잡음이 생길 여지를 줄였다.

또 하나의 성공요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지자체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 진행하는 콩쿠르이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콩쿠르가 참가비에 의존하여 예산을 세우고 상금을 집행하다보니 참가비가 높이 책정된다거나 참가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저런 불공정한 사안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 반면에 군포시에서 직접 주최





하는 수리콩쿠르는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관의 행정체계 도입으로 인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등이 가능했다. 게다가 당시로서는 최고의 상금을 책정, 여타의 콩쿠르들과 비교되면서 점차 우수 콩쿠르로 인정받게 되었다.

수리콩쿠르 개요

콩쿠르의 내용을 보면 1995년 제1회 대회에서는 피아노와 동요 부문만 치렀고, 제2회부터 성악이 포함되었다. 제2회에는 참가자격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외에 대학일반부가 추가되었다. 당시에는 대학일반부 경연은 격년제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제4회부터는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제8회까지는 현 전국수리동요대회에 해당하는 동요 부문이 경연에 포함되어 있었다. 제9회와 제10회 대회에서는 동요 대신 현악이 추가되었으나 그 후로는 현악 부문이 제외되었다.

현재 전국수리음악콩쿠르는 피아노와 성악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피아노 부문에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가 참가하고, 성악 부문에는 고등부, 대학일반부가 참가하여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뉘어 경연한다. 그리고 고등부 이상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상금이 수여되며, 고등부와 대학일반부 입상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기회를 제공하는 입상자 음악회를 개최하여 역량을 발휘할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수리동요대회

전국수리동요대회는 컴퓨터에 중독되다시피 한 요즘의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정서적 체험을 주기위해 개최되고 있다. 현재 전국수리음악콩쿠르와 같은 시기에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음협이 주관하고 있다.

2002년까지 전국수리음악콩쿠르의 동요 부문으로 시행되다가 2003년 제9회부터 독자적인 대회로 분리되었다. 분리 첫해인 2003년에는 10월에 개최되었으나 그 후로는 전국수리음악콩쿠르 기간 즈음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9회와 제10회 대회부터는 경연부문이 세분화되어 독창, 중창, 합창 등 3개 부문으로 시행되었으나 제11회부터는 독창과 중창 부문만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 독창은 2개 학년씩 나누어 1 2학년부, 3 4학년부, 5 6학년부로 진행된다. 이밖에 제14회부터는 지도교사상을 수여하고 있다.

대중음악과 어른들의 문화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어린이다운 정서를 잃어가고 있는 아동들이 아름다운 노랫말과 연령대에 어울리는 동요를 듣고 따라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해서 수리동요대회는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을 지양하고 가급적 음악축제의 분위기를 띠고 진행이 되고 있다.

수리콩쿠르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담당자들의 애정이 담긴 노력과 헌신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 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수리콩쿠르운영위원회 및 군포음협, 군포예총의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고민, 새로운 방법 모색 등이 수리콩쿠르라는 하나의 그릇에 부어져 틀이 잡히고 모양이 형성돼왔다고 할 수 있다.

수리콩쿠르 이전에는 군포에서 전국규모의 대회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수리콩쿠르는 멀리는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참가하여 대상을 받기도 했다. 뛰어난 대회 운영이나 수리콩쿠르의 높아진 위상으로 인해 군포라는 이름을 전국에 긍정적인 이미지로 홍보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의 음악도들이 오랫동안 배우고 익히며 갈고 닦은 기량을 검증받고 그 결과 우수한 음악인재들을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수리콩쿠르의 개최이념이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수리콩쿠르의 무대를 통해 격려와 기쁨을 얻고 한국과 세계무대로 뻗어 나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수리콩쿠르의 존재이유는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필요가 있다. 수리콩쿠르여, 눈부시게 날아오르라!

글 최남희 (『군포예술』 편집인)

